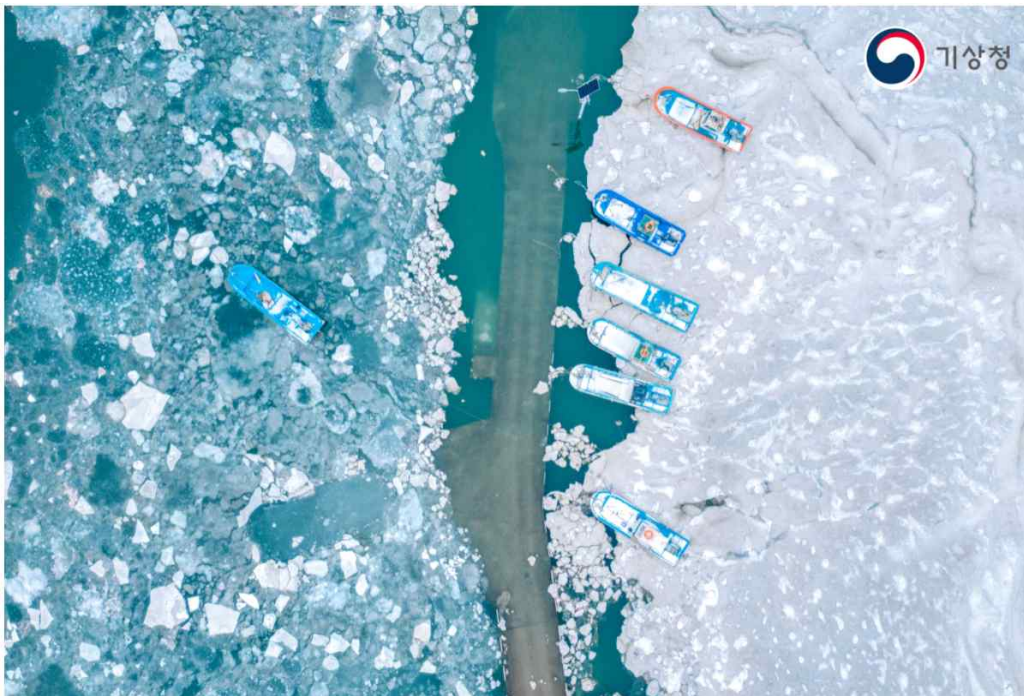


배포일시	2021. 12. 2.(목) 16:00 (총 6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 대 변 인	담당자	과 장 이 용 섭 과 장 김 회 철	전화번호	02-2181-0372 02-2181-0352

날씨가 만들어낸 우리나라 자연경관, 전 세계가 함께 나눈다

- '세계기상기구(WMO) 2022년 기상달력 사진 공모전'에 국내 작품 2점 선정 -

-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조기 경보 및 대응, 재해위험 감소를 위한 수문기상 및 기후정보'를 주제로 진행된 '세계기상기구(WMO) 2022년 기상달력 사진 공모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막힌 바닷길 (Blocked Sea Route / 황선영 作)' 사진과 '렌즈구름(A Lenticular Cloud / 신규호 作)' 사진 총 2점이 선정되었다고 2일 밝혔다.



| 세계기상기구 2022년 달력 사진으로 선정된 막힌 바닷길(황선영 作) |

- 매년 세계기상기구에서는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음 해 달력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며, 1,100여 점의 전체 응모작 중 최종 14점 (표지 2점과 월별 각 1점)을 선정한다.
 - 국내 작품은 2019년 공모전 이후 4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기상현상을 아름답게 담아낸 입선작(12점)에도 2점의 국내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 선정된 사진인 ‘막힌 바닷길’은 북극한파로 인해 바다가 얼어 출항하지 못하는 배들을 사진으로 담아내어 주제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렌즈구름’은 함백산의 억새밭과 함께 위험기상을 상징하는 렌즈구름을 잘 담아내었다고 평가되었다.



| 세계기상기구 2022년 달력 사진으로 선정된 렌즈구름(신규호 作) |






- 기상청은 내년에도 ‘제39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2022. 1분기 예정)’을 통해 일상 속의 다양한 기상현상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 내년 공모전 수상작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에서 시공간적 제약 없이 전시될 예정이다.

-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세계기상기구 2022년 달력사진 선정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기상현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라며 “내년도 기상청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에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세계기상기구(WMO) 2022년 기상달력 사진 공모전 선정작
2. 세계기상기구(WMO) 사진 공모전 선정·입선 국내 작품
3. 세계기상기구(WMO) 사진 공모전 우리나라 선정 이력



붙임1

WMO 2022년 기상달력 사진 공모전 선정작(14점)

		
한국	한국	호주
		
우루과이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미국	크로아티아
		
프랑스	방글라데시	포르투갈
		
부르키나파소	아르헨티나	

붙임2

WMO 기상달력 사진 공모전 선정·입선 국내 작품

연번	사진	작품명(작가명)	비고
1		렌즈구름 (신규호)	선정
2		막힌 바닷길 (황선영)	선정
3		여명의 물결 (김승진)	입선
4		폭설 내리던 북촌한옥마을 (황선영)	입선

붙임3

WMO 기상달력 사진 공모전 우리나라 선정 이력

연도	사진	작품명(작가명)	비고
2019		돌탑과 햇무리 (신규호 作)	표지
		흑한의 아침을 열다 (오권열 作)	2월
2020		대청호의 고드름 (윤석헌 作)	3월
2021		안개도시 (방춘성 作)	10월